

# 라파즈한라, 낙석사고 구조 “난항”

시멘트 채석장 매몰자 2명 생사 미확인 ...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 수사

8월23일 오후 강원 강릉시 옥계면 라파즈 한라시멘트 채석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낙석사고로 매몰된 실종자 구조작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 회사측은 8월24일 매몰돼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덤프트럭 기사 최모(54)씨와 착암기 기사 김모(56)씨 등에 대한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무너져 내린 돌덩이가 워낙 많은데다 돌더미가 계속 흘러내려 구조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사고는 백두대간 마루금인 자병산 백봉령 정상 부근에서 엄청난 양의 낙석이 순식간에 100여m 아래의 폭 150m 가량의 작업장을 덮치면서 일어났다.

라파즈 한라시멘트의 하청기업 직원인 덤프트럭 기사 최씨는 계단으로 된 채석장 중턱에서 석회석을 싣고 가다 사고를 당했고, 김씨는 채석장 아래에서 돌덩이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무너져 내린 대규모의 돌덩이에 파묻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구조팀은 8월24일 오전 바위에 구멍을 뚫는 착암기를 발견했으나 김씨의 생사는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동부광산보안사무소는 합동조사단을 투입해 원인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경찰도 채석 후 쌓아둔 석회암석이 낙석사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야간 발파작업을 금지한 수칙을 어기고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 발파진동 때문에 사고가 났는지 등 여러 가능성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8/24>